

'운명의 날' 양승태 내일 구속심사

영장전담 판사에 검찰 출신 명재권 판사

같은 날 박병대도... 허경호 판사 심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7기)이 23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7기)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오는 23

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 출신의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심리 내용을 한쪽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수차례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강석훈 기자

대한체육회, 체육계 성폭력 근절 혁신위 결성

성폭력 근절 혁신위 결성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결성한다.

체육회는 21일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이행 계획을 밝혔다. 15일 이사회가 결의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추방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병장 서울대 명예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위촉,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1소위), 제도개선(2소위), 인권보호 및 교육(3소위), 그리고 선수촌 혁신(4소위)이다.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이 1소위원장으로,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2소위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4소위원장을 맡는다. 제도개선 부문은 미정이다.



무소속 손혜원(오른쪽부터) 의원,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박지훈 자문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열린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에서 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 한국체육대학교 감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및 수뇌부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를 할 1소위는 우선적으로 빙상연맹의 폭력·성폭력 등의 비위를 다룬 예정이다. 파벌, 승부조작, 회계 등 모든 사안을 심층 조사한다.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젊은빙상인연대 “체육계 성폭력 6건 더”

'사건 은폐 가담' 한체대 전명규 교수 수사 촉구

손혜원 의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복 두려워해"

젊은빙상인연대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6건 더 있다고 밝히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등 빙상인들로 구성된 '젊은빙상인연대'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고 전해졌다.

손 의원은 "젊은 빙상인 연대가 피해를 직접 만나 증거를 수집해 확인한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빙상선수 A씨는 10대 시절 한체대에서 강습을 받던 중 한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세 교정을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 당했다.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붓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스케이트를 그만뒀지만 코치는 여전히 빙상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전 교수가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가해자가 활동 중인 걸 보서는 전 교수가 사건 은폐에 가

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빙상 선수들은 그가 측근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최근 빙상계에서 제기된 성폭력 사례들을 조사·정리하면서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본 선수들이 왜 혼자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들이 어째서 계속 승승장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 감사 결과 전 교수의 전횡과 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한체대는 고작 감봉 3개월의 징계로 면죄부를 줬다"며 "전 교수가 총책임으로 있던 한체대 빙상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가한 코치나 당한 선수는 한체대와 관련된 이들과 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내달 한달간 모집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까지 지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용자)' 희망자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며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향이 있는 어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단계별 선발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으로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 경영한 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된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 경영한 자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여기 반 조성 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선정 단계별로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2억 5000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은 최대 3억 원까지,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만 해당)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2년 이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후계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 ▲어선어업 기반 조성 시 중구 구입은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공동경영 또는 지분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나, 가족경영일 경우 구성원 중 1인에 개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어업인후계자 신청 시 어업기반 평가 항목에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올해 사업부터는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점수를 인정받도록 개정이되어 귀어희망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내일부터 3일간 정보화마을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

전북도는 설날을 맞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라북도청 1층 로비에서 도내 정보화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전북도 정보화마을을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개최되어온 직거래장터로, 올해는 8개 시군 17개 정보화마을이 참여하고,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배, 대추, 한우국거리, 나물세트 등 제수용품과 버섯, 유과, 초창, 차 선물세트 등 70여개 품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도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수산물은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대표 홈페이지(<http://jobuk.invil.org>) 및 각 마을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올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1억1300만원 기금 확보

전주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숙 교수, 원관대)는 지난 18일 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 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성평등사회 촉진을 위한 성평등기금을 지원받을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함께 하는 일상, 행복한 당신(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장애인 성평등 장애평등 인권교실(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전북여성노동자회)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이야기(효자 청소년문화의 집) △우리가족, 행복을 꽃피우다(전주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심비인지훈련지도자 양성과정(전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술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우아한 우리들'(우아문화의집) △모두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양성평등 세상(교육융합연구소 부설 다문화교육센터) 등 8개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는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금 1억13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작년 12월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주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접수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